

김도영, 9회 2사 후 역전스리런...LG戰 ‘스윙’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원정경기에서 9회초 역전 스리런을 터뜨린 후 포효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6대4 짜릿한 역전승...‘3위 사수’

고우석 상대 ‘42호포’, 홈런 단독선두...‘슈퍼 스타’ 증명 3연속 뒤집기 기세로 오늘 삼성戰...3위 굳히기 총력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김도영의 결승 홈런을 앞세워 잠실 3연전을 쓸어들었다. KIA는 3경기 모두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

KIA는 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6-4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전날까지 LG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둔 KIA는 승률에서 앞서 3위로 올라섰다. 이날 승리로 4위 LG와의 격차를 1경기로 벌렸다. LG는 8연패에 빠졌다.

주인공은 김도영이었다.

김도영은 3-4로 뒤진 9회초 고우석을 상대로 역전 3점 홈런을 터뜨렸다. 이날 기록한 그의 유일한 안타였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한 방을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다.

시즌 42호 아치를 그린 김도영은 홈런 부문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김선빈과 나성범도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김호령은 2타점 적시타를 때렸다.

선발 투수 올라가 6이닝 5피안타 4볼넷 4실점으로 고전했지만 볼펜이 추가 실점을 막았다.

이태양과 이의리, 정해영, 성영탁이 차례로 마운드에 올라 무실점으로 버텼다.

KIA는 1회부터 4점을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1사 이후 2루타와 볼넷을 허용했다. 이어 연속 적시타로 2실점했다.

2사 이후 다시 볼넷을 헌납하며 만루 위기에 몰렸다. 2타점 적시타까지 맞았다.

KIA의 반격은 4회부터였다.

나성범의 안타와 김규성의 2루타로 1사 2 3루 기회를 만들었다. 김호령이 2타점 적시타를 때렸다. KIA가 2-4로 따라붙었다.

6회에는 김규성의 빠른 발로 한 점을 더 좁혔다. 2사 이후 김규성이 볼넷으로 출루했다. 곧바로 2루 도루에 성공했다. 김호령의 타구 때 3루수

실책이 나왔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김규성이 홈까지 파고들었다.

그리고 9회 기어이 승부를 뒤집었다.

박정우와 박재현이 연속 안타를 때렸다. 1사 1, 2루 기회를 잡았다. 김선빈이 삼진으로 물러났다. 아웃카운트 하나만 남았다.

하지만 KIA에는 김도영이 있었다.

김도영은 고우석의 시속 155km 직구를 잡아당겼다. 타구는 그대로 왼쪽 담장을 넘어갔다. 단숨에 6-4로 뒤집는 역전 3점 홈런이었다. 지난달 29일 KT전 이후 5경기 만에 터진 홈런이다.

9회말에는 성영탁이 마운드에 올랐다. 세 타자를 깔끔하게 돌려세우며 승리를 지켰다. KIA는 잠실 3연전을 3연승으로 마무리했다.

앞선 두 경기에서도 KIA는 경기 막판 승부를 갈랐다. KIA는 지난 3일 LG와의 경기에서 9회가 승부처였다. 4-4로 맞선 9회초 1사 1, 3루에서 김선빈의 희생번트로 결승점을 뽑았다.

4일에도 9회에 경기를 뒤집었다. KIA는 3-5로 뒤진 9회초 황대인의 볼넷과 김호령의 안타로 무사 1, 3루를 만들었다. 김태균과 이호연의 연속 안타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카스트로의 희생플라이로 6-5 역전에 성공하며 LG를 4위로 밀어냈다.

3위 굳히기에 나선 KIA는 6일 대구로 이동해 삼성과 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치른다. /주홍철 기자

대한민국이 함께 만드는 감동!



2026 아미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안세영



근대5종 서창완



양궁 오예진



유도 김민주



사격 봉서린



육상 이재성 /연합뉴스

광주·전남 태극전사들 투혼 빛났다

2026 아미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폐막...대한민국 금 39·은 43·동 68 '종합 3위'

배드민턴 안세영·근대5종 서창완·카누 최민규·사격 윤서영 '금빛 감동' 양궁 오예진·유도 김민주·사격 봉서린·육상 이재성 '금보다 값진 메달'

2026 아미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지난 4일 일본 나고야의 미즈호 공원 육상경기장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16일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3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68개를 획득, 중국(금169·은89·동83), 일본(금83·은95·동91)에 이어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전남광주 소속·출신 선수들도 투혼을 발휘하며 대한민국 선전에 힘을 보탰다.

전남광주특별자치정 근대5종 서창완이 선봉에 섰다. 서창완은 근대5종 남자 단체전에서 전용태(강원도체육회), 이종현(대전시청)과 팀을 이뤄 총 4천779점으로 금메달을 합작하며 대한민국 근대5종 아시안게임 2연패를 이뤘다.

카누 카약종목에서는 전국체전 광주대표 최민규(국민체육진흥공단)가 짜릿한 금빛 물살을 갈랐다.

최민규는 조광희, 김효빈, 장상원과 팀을 이뤄 출전한 카누 스프린트 남자 카약 4인승 500m 결승(파이널 A)에서 1분 22초 587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민규는 선민주와 호흡을 맞춘 혼성 카약 2인승 500m에서도 은메달을 수확하며 두 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국체전 사격 광주대표 윤서영(KB국민은행)도 생애 첫 출전한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금

빛 방아쇠를 당겼다.

윤서영은 사격 남자 25m 속사권총 단체전에서 선배 송중호, 이견혁과 함께 금메달을 합작하며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한국 속사권총이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12년 만에 되찾아온 귀중한 단체전 금메달이다.

광주시체육회 소속 '엄마 사수' 봉서린은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봉서린은 여자 25m 권총 단체전에서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지인(우리은행), 오예진(IBK기업은행)과 함께 사선에 올라 1천735점으로 중국(1천743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2007년 사격을 시작한 봉서린은 2017년 실업팀에 입단했고, 2021년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결혼과 출산을 거쳐 4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그는 사격 입문 19년 만에 첫 아시안게임 출전과 메달 획득을 이뤘다.

양궁에서는 오예진(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이 은메달 2개를 수확했다.

아시안게임에 첫 출전한 오예진은 리커브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 역전패하며 금메달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오예진은 강재영·이윤지(이상 현대모비스)와 호흡을 맞춘 리커브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합작했다.

광주교통공사 유도 김민주의 투혼은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광주체육, 광주체고에서 선수의 꿈을 키운 김민주는 지난 2월 훈련 도중 오른쪽 무릎을 크게 다쳤고, 김진 결과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대에 오르며 국가대표 선발전은 물론 아시안게임 출전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고민 끝에 김민주는 수술 대신 재활을 택했다. 김민주는 그렇게 상처 받은 무릎을 이끌고 2026 아미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무대에 섰다.

김민주는 첫 상대인 예카테리나 토카레바(카자흐스탄)를 한판으로, 준결승에서 아롤리나 사비노(레바논)를 어깨로메치기 유효승으로 누르며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마지막 상대는 스기무라 미즈키(일본)였다.

성치 않은 무릎으로 수개월을 버텨낸 김민주는 정규시간 4분에 이어 연장전(골드스코어) 승부에서도 끊임없이 업어치기를 시도했지만 석연찮은 심판 판정으로 은메달에 그쳤다.

육상에서는 광주전남통합시청 육상팀 이재성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재성은 서민준(서천군청), 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 비웨사 다니엘 가시마(안산시청), 김시온(국군체육부대)과 호흡을 맞춘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 38초43의 한국 신기록으로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나주 출신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은 여자 단식 결선전에서 세계랭킹 3위 아마구치 아카네(일본)를 2-0으로 격파하며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사상 첫 2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박희중 기자



전남광주시체육회장이 아미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경기가 열린 일본 아이치현 오키자키 중앙종합공원 다목적광장에서 한국 양궁 선수단 응원에 나선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AG 현장에서 광주체육 미래를 보다

전남광주시체육회장, 빛고를 태극전사 격려...2028 國體 성공청사진 구상

전남광주시체육회장이 아미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기간 현지에서 경기장을 직접 찾아 광주의 명예를 걸고 뛰는 태극전사들을 격려했다.

전남광주시체육회장은 지난달 30일 이나에 스포츠센터를 찾아 레슬링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했고, 10월1일에는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유도 경기를 지켜보며 김민주(광주교통공사)의 투혼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광주는 이번 대회에 선수 20명과 지도자 4명 등 24명이 14개 종목에 참가했다.

전남광주시 회장은 "선수들이 국가대표라는 이름으로 경기장에 서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땀을 견뎌냈다"며 "체육회가 해야 할 일은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의 또 다른 화두는 2028년 전국체육대회였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2028년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것은 2007년 이후 21년 만이다. 전국체전을 계기로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경제·시민 참여가 결합된 종합 스포츠축제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전남광주시 회장은 재임 중 유치에 성공한 2028 전국체육대회를 단순한 전국 규모 체육행사가 아닌 광주체육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전 회장은 "전국체육대회는 선수들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경기장 시설, 운영 시스템, 관중 응원, 선수지원, 자원봉사 등 도시 전체의 역량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2028 전국체육대회는 통합체육회가 만드는 첫 전국체전인 만큼 지금까지 최고나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하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종목단체와 경기장, 선수지원체계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체전의 성공은 지금부터 현장에서 얼마나 준비하는냐에 달려 있다"며 "경기력 향상은 물론 경기장 시설과 운영, 안전, 시민 참여, 생활체육 활성화까지 모든 분야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고야에서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본 전남광주시회장의 시선은 이제 2028년 광주로 향하고 있다. 아미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세계와 경쟁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통해 광주체육의 현재를 확인하고, 각국의 선수단·응원단의 만남을 통해 스포츠의 또 다른 가치를 되새겼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28 전국체육대회를 철저히 준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체육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희중 기자